

# 전남체육인들 가슴 태극마크로 물들다

펜싱·사이클·우슈에서 태극마크 달아

양궁·스쿼시도 태극마크 사냥 나서

전남체육인들이 2021년도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며 힘찬 도약을 준비 중이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전거와 펜싱, 우슈 종목에서 2021년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고 밝혔다.

자전거에서는 3명의 전남도 선수들이 2021년도에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먼저 지난 10월, MTB 김민오(강진군청)가 사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이후 지난달 27일 경기도 광명에서 열린 2020년도 트랙 국가대표 선수 선발 평가전에서 신동인과 황범연(이상 강진군청)이 남자 중장거리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신동인은 올 시즌 3개 대회(KBS, 8.15경축, 국가대표 선발전) 랭킹포인트를 합산한 결과 3위로, 황범연은 5위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단거리 여자 국가대표에는 나주시청의 조선영이 선발됐다. 전남도청 펜싱팀도 금빛 찰리기를

통해 국가대표 2명을 배출했다.

전남도청 펜싱팀은 지난달 27일부터 전북 익산에서 열린 2020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일부 예매 결승에서 유진실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1위로 국가대표에 선발됐고, 여일부 사브르 결승에 출전한 최세빈은 어렵게 준우승 하면서 2위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우슈팀에서는 청소년 국가대표가 선발됐다.

순천복성고 우슈팀 윤여중(2년)은 지난 2일 충북 보은에서 끝난 제32회 회장배 전국우슈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 산타 56kg급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며 내년 3월까지 청소년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다는 기쁨을 맛봤다.

한편, 양궁과 스쿼시도 다가오는 2021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태극마크 사냥에 나선다.

순천시청 양궁팀 최미선은 2021년



순천복성고 우슈팀. (사진 왼쪽부터 1학년 산타-60kg 배찬양, 2학년 산타-65kg 한동훈, 2학년 산타-56kg 윤여중, 강숙영 복성고 교장선생님, 윤병용 전남우슈협회장, 이태성 복성고 코치, 양성은 복성고 감독)

도 국가대표와 도쿄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해 현재 2차 선발전을 통과했고 내년 3월 3차 선발전 과정을 조준 중이다.

2020년도 여자 스쿼시 국가대표 양연수를 비롯한 전남도청 스쿼시팀도 11월 말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태극마크 사냥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무 회장은 “올 시즌 유난히도 힘든 시즌을 보낸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값진 결과를 이뤄내 박수를 보낸다”며 “전남의 대표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전남체육의 자긍심을 드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장하나.

유해란.

## 장하나·김효주 등 하나금융 그룹 챔피언십에 우승 도전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대회에서 줄줄이 입상하며 태극마크까지 가슴에 달았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총감독 안용준) 펜싱팀, 스쿼시팀, 근대5종팀, 우슈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5개를 비롯하여 총 1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근대5종팀이 승전보를 올렸다.

근대5종팀은 지난달 24일부터 1일까지 해남에서 열린 제7회 한국산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서창안이 2관왕에 오르는 등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현 국가대표인 서창안은 남일부 근대5종 개인전에서 1위에 올랐고, 박상규와 호흡을 맞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일부에서는 정민지, 심재나, 손예진이 출전한 근대4종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정민지는 개인전과, 공인준과 함께 출전한 혼성계주에서도 각각 3위에 올랐다.

근대5종팀의 금빛 낭보에 이어 펜싱팀에서는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경경사를 맞았다.

펜싱팀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전북 익산에서 열린 2020 펜싱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개인전 예매 결승에 출전한 유진실이 신현아(부산시청)를 13:12로 꺾고 2021년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사브르의 최세빈도 개인전 결승에 출전해 전은혜(대전시청)에 아쉽게 9:15로 패했지만 은메달을 확

득하며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국가대표 양연수가 포진한 스쿼시팀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제20회 회장배 한국 스쿼시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여일부에서 양연수가 결승에서 김가혜(광주광역시체육회)에 아쉽게 0:3으로 패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박은옥은 4강전에서 양연수에게 패하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충북 보은에서 열린 제32회 회장배 전국우슈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한 우슈팀도 금메달 2개를 포함해 총 6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회장배 남일부 산타 +85kg 유영록과 -56kg 윤용진이 금메달을, -70kg 강영식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국가대표부 남일에 출전한 김영준과 태극권 장민규도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며 우슈팀 선수 6명 전원 입상하는 기쁨을 토했다.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전남체육을 대표하는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금빛 낭보는 올 시즌 코로나19로 인해 유난히도 힘든 시즌을 보낸 선수들이 흘린 땀의 보람이다”며, “전남체육회는 내년에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도내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괴물’ 케이타 등장에 프로배구 초반 판도 ‘대혼전’

11시즌 만에 개막 4연승 질주...승점 11로 1위 이름 올리



KB손해보험 케이타.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말리 출신 ‘괴물’ 노우모리 케이타(KB손해보험)의 등장에 V-리그 초반 판도가 예년과 달리 흘러가고 있다.

4월 현재 남자부 선두는 KB손해보험이다. 11시즌 만에 개막 4연승을 질주하며 승점 11로 당당히 1위에 이름

을 올리고 있다.

준플레이오프가 시행된 2010~2011 시즌 이후 9년 간 TV로만 볼 배구를 지켜왔던 KB손해보험의 변신은 케이타의 영입과 맥을 같이 한다.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KB손해보험에 합류한 케이타는 단숨에 리그 최고 외국인 선수로 등극했다. 케이타는 4경기에서 163점을 얻어 이 부문 1위에 랭크됐다.

케이타의 가장 큰 무기는 상대 블로커의 견제를 무색게 하는 높은 타점이다. 블로커들이 타이밍을 잡아도 손위에서 공을 때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질 줄 모르는 체력까지 갖췄다. 3일 삼성화재전에서 케이타는 3세트 15점, 4세트 14점, 5세트 9점을 올리는 괴력을 과시했다. 3세트 69.7%이던 공격 점유율은 4세트 77.88%까지 치솟더니 5세트에서는 92.3%에 달했다. 5세트에서 공격 득점을 기록한 KB손해보험 선수는 케이타 뿐이었다.

아직 만 19세에 불과한 어린 선수라는 점은 더욱 무서운 대목이다. 지금

의 세기에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케이타와 KB손해보험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K금융그룹의 2위도 낮설긴 마찬가지다. 최근 세 시즌 간 각각 최하위, 5위, 4위에 머물렀던 OK금융그룹은 4연승(승점 10)으로 KB손해보험에 한 계단 뒤져있다.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한 펠리페(109점·득점 5위)를 중심으로 송명근, 이민규 등이 힘을 내면서 누구와 겨뤄도 크게 밀리지 않는 팀으로 변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포스트시즌이 열리지 않은 지난 시즌을 제외한 최근 세 시즌 동안 챔피언결정전에서 서로를 마주했던 현대캐피탈(승점 7·3승1패)과 대한항공(승점 6·2승2패)은 3위와 4위에 머물러있다.

현대캐피탈은 군 입대한 전광인의 공백에, 대한항공은 2년차 외국인 선수 비에나의 난조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첫 정규시즌 1위에 등극한 우리카드 또한 출발이 좋지 않다. 1승4패(승점 5)로 5위다. 이미 2019~2020시즌 7패(32경기)의 절반이 넘는 4패를 당했다.

김미희기자

## 성남 잔류 이끈 홍시후, K리그1 최종 라운드 MVP



성남FC 홍시후가 잔류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 성남FC의 K리그1(1부리그) 잔류를 이끈 막내 홍시후(19)가 2020시즌 K리그1 최종 27라운드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프로축구연맹은 4일 “지난달 31일 성남-부산 아이파크의 최종 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성남의 2-1 역전승을 이끈 홍시후를 27라운드 MVP

에 선정했다”고 전했다.

하위권 세 팀 성남, 부산, 인천 유나이티드의 K리그2(2부리그) 강등 여부가 정해지는 중요한 일정이었기에 홍시후의 활약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홍시후는 0-1로 뒤진 후반 20분 동점골을 터뜨린데 이어 후반 32분 마상훈의 역전 결승골을 도왔다.

성남은 역전승으로 부산을 최하위로 밀어내고 K리그1 잔류에 성공했다.

홍시후는 올해 프로에 데뷔한 신인으로 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일정에서 개인 통산 1호골과 1호도움을 기록했다. 27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1일 열린 포항 스틸러스-상주 상무의 경기로 정해졌다. 포항이 3-1로 승리했다. 포항은 56골로 12개 구단 중 득점 1위를 차지했다. 베스트팀은 울산 현대다.

한편, K리그2 26라운드 MVP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우승과 함께 K리그1 승격을 이끈 공격수 진성욱이다.

김미희기자

## 토틸 구단주, 손흥민 최고 대우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틸이 손흥민과 재계약을 위해 팀 내 최고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기로 했다. 간판 공격수 해리 케인의 주급 3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영국 ‘풋볼 인사이드’는 4일(한국시간) “조 루이스 토틸 구단주가 손흥민과 재계약을 승인했다. 손흥민에게 케인과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조건으로 제안할 것이다”고 보도했다.

기본 주급 20만 파운드(약 2억 9600만원)에 성과에 따른 옵션이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는 팀 내 최고인 케인과 비슷한 조건이다.

보도에 따르면, 조세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최고 대우를 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재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사는 “루이스 구단주와 다니엘 레비 회장은 크리스티안 에릭센(인테 밀란)처럼 낮은 이적료에

팀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손흥민과 재계약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미 지난달 말에 “손흥민이 토틸로부터 주급 20만 파운드에 보너스까지 5년간 총액 6000만 파운드를 받는 연봉 조건을 제시받았다”고 보도했다.

현재에서는 잔류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다. 손흥민이 지난달 말 글로벌 에이전시 CAA 스포츠와 계약했는데 이 회사는 무리뉴 감독의 소속사이기도 하다.

2015년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한 손흥민은 2016~2017시즌부터 5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선 11골 10도움을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10-10을 달성했다.

이번 시즌에는 한 경기에서 개인 최다인 4골을 퍼붓는 등 빠른 득점 페이스를 자랑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지난 10월 7일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한화 이글스의 더블헤더 1경기, 6-4 승리를 거둔 KIA가 인사를 하고 있다.

## ‘팬서비스 논란’ KIA “반드시 달라지겠다”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팬 서비스 논란에 사과했다.

KIA는 3일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지난 10월 31일 정규시즌 최종전이 끝나고 선수단이 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IA는 지난달 3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4-3으로 이겼다.

문제는 경기 후 선수단의 태도다.

선수들은 장내 안내원의 “팬 여러분을 향해 손을 흔들며 달라”는 거듭된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더그아웃으로 향했다.

구단은 “최소하다. 구단은 팬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팬 서비스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펼쳐 나가겠다. 프런트와 선수단 모두 팬 서비스 실천에 만전을 기해 반드시 달라지고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팬 여러분의 송고한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정기자